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만 1·2세반 아동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Maternal Anxiety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the
Adjustment of 1- and 2-year-old Children in a Child-Care Center

가톨릭대학교 아동가족학전공

박사과정 양 숙 경**

가톨릭대학교 아동학전공

부 교수 문 혁 준***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Doctoral Student : Yang, Suk-Kyung

Dep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Moon, Hyuk-Jun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aternal anxiety and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on the adjustment of 1- and 2-year-old children in a child-care center. The subjects were 344 working mothers who were raising 19- to 42-month-old children and 106 class teacher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Data analysis was done using the SPSS WIN 15.0 version and the collected data were subjected to 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one-way ANOVA, Scheffé's post-test an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a) children's adaptability to child-care centers varied with their sex, age, and the existence of siblings. Girls and children of higher age were more adaptable than boys and younger children. Children who have siblings were more adaptable compared to those who were the only child in the family. Also, children who were enrolled at a workplace provided child-care center were more adaptable than those who entered other kinds of child-care centers. (b)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influences the adjustment of children in a child-care center.

It was found that the teacher-child relationship is the strongest indicator to predict how well the child will adjust to the child-care center.

▲주요어(Key Words) : 어머니의 분리불안(maternal anxiety), 교사-영아관계(teacher-child relationship), 적응 (adjustment)

I. 서론

현대사회 특징 중 하나로 핵가족화가 확산됨에 따라 가정

에서 영유아는 부모 외에 보육과 교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성인이 줄어들었으며,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직업을 가지는 여성들은 육아와 교육의 문제를 가정에서 할 수 없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었다. 또한 자녀의 수도 줄어들어 가정에서는 형제간이나 부모와의 충분한 상호작용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적 경험을 더욱 중요시하게 되

* 본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중 일부임

** 주 저 자 : 양숙경 (E-mail : ysk7744@hanmail.net)

*** 교신저자 : 문혁준 (E-mail : mhyukj@unitel.co.kr)

었다. 따라서 과거와는 다르게 보다 이른 시기에 유아교육기관을 경험하게 되며, 또래와 다른 성인의 영향을 받으며 성장한다(이희영, 2001).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은 1990년 414,532명에서 2008년에는 537,822명으로 증가하였고,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1990년 48,000명에서 2000년에는 686,000명으로 10년 사이에 14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 6월에는 1,091,287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세 미만 영아는 426,899명으로 약 39%를 차지하는데, 이러한 현실은 점점 가정 밖 보육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른 시기부터 영아들이 어머니와 매일 격리를 경험하고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함을 시사해준다.

적응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원영미(1990)는 적응이란 개인과 환경과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개인이 환경 안에서 만족할만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나가는 상태를 일컫는다. 또한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영유아가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있는 관계를 이룩하기 위해 습득해야 하는 기능적이거나 학습화된 변화를 의미한다. 즉 유아교육기관의 규칙을 습득하며 지키고 교사 및 또래와 상호작용에서 인정받는 것을 배우고, 유아교육기관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임말자·최경순, 2003). 최순덕(2007)은 유아에게 있어서 유치원 적응이란 유아가 자신의 고유한 특성과 욕구를 가지고 유치원 환경에 자신을 잘 맞추어 갈 뿐만 아니라 유치원 일과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유아와 또래 및 타인 사이에서 불균형과 불안정 등의 긴장감 없이 유치원 내에서 조화와 균형이 잘 잡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적응이란 개인이 환경 안에서 만족할만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나가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적응을 보다 협의의 의미로 받아들여 영아가 어린이집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즉 어린이집에서 보이는 영아의 적응상태로 국한하였다.

영유아가 가정을 떠나서 최초로 접하게 되는 낯선 환경은 유아교육기관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유아가 초기에 경험하게 되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은 후에 영유아로 하여금 학교생활을 즐겁게 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수행하도록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 자기 확신 등을 향상시킬 수 있다(최순덕, 2007). 또한 이 시기에 어린 영유아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의 또래들과 선생님, 그리고 새로운 환경들에 성공적으로 적응한다면 영유아는 성장한 이후에도 심리적·사회적으로 성공적인 적응을 잘 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송진숙, 2004).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유아들에게 감기나 전염병과 같은 질병에 걸리는 신체적 부적응 행동(김민지, 2000), 공격적 행동의 증가(이영·김명순,

1999), 과잉행동, 주의 산만, 또래나 교사에 대한 적대행위나 회피 행동(Ladd & Price, 1987) 등과 같은 부적응 행동들이 보고되고 있다.

영유아의 적응에 대한 어려움은 특정시기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학교생활과 더 나아가 성인이 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가 최초로 접하게 되는 학교환경으로써 유아교육기관 내에서의 적응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 3세 이상의 유아들은 보육시설의 인적환경(또래, 교사, 시설장 등)이나 물리적 환경(활동실, 놀이감, 화장실, 주방, 실외놀이터 등) 등을 담임교사로부터 소개 받고 이를 스스로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좀 더 능숙하지만, 만 2세 이하의 어린 영아들은 발달 특성상 자신이 머무르게 되는 보육환경에 대한 이해나 인식이 부족하다. 또한 주 양육자인 어머니로부터 격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불안감과 공포심을 가지고 낯선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만 한다(김희진·김영애, 2008). 따라서 만 3세 미만의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과 영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영아의 적응이 중요하다고 하겠다.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아동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여아가 적응을 더 잘 한다는 보고(원영미, 1990; 전미경, 2004; 정은혜, 2000; 현은강·태진, 2000), 남아가 더 적응을 잘 한다는 보고(손인숙·송진숙, 2004)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연구결과(이현숙·조혜진, 2009)가 있다. 영유아의 연령에 따른 연구에서는 대부분 연령이 많을수록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류경, 2000; 손인숙·송진숙, 2004; 이현숙·조혜진, 2009; Parker-Cohen & Bell, 1988),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결과(현은강·태진, 2000)도 있다. 또한 형제유무에 따른 적응을 비교한 것으로는 형제아와 외동아의 적응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보고(장성덕, 2007)가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적응에 대한 하위영역 별 연구 결과가 비 일관적이므로 적응에 대한 사회·인구학적 변인을 규명하는 경험적 연구가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영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은 여러 요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일어나는데 크게 영유아 개인변인, 가정환경 변인, 유아교육기관 변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정환경 변인으로 아동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계를 맺는 부모 특히, 아동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영유아의 적응(박희정, 2008; 유현숙, 2006; 장성덕, 2007; 장혜정, 2003; Becker, 1964)에 관하여 다른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하지만 영유아의 적응은 부모의 양육태도 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도 한다.

Belsky(1984)는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최상으로 강화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부모 개인의 심리적 원천이라고 하였다. 부모들 중에는 자신의 심리적 제한점으로 인해 자녀의 바람직한 발달을 방해하거나 잘못된 사회·정서적 발달을 유도하는 예가 적지 않다(Salovey & Mayer, 1996).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7년 11월 62.2%임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여, 그 결과 M자형의 후진적인 여성 취업형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기혼 여성근로자가 취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지원체계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자녀양육과 사회 활동을 병행할 때 부딪히게 될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시사해 준다. 실제로 기혼 여성 근로자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자녀보육의 문제(김교성·김경희, 2003)로 아동과의 분리불안도 그 중 하나 일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자녀를 떠나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을 반영하는 불유쾌한 감정 상태로 어머니가 아이를 떠나게 되는 것에 대한 슬픔, 근심, 죄책감, 불편함의 감정을 의미한다(Lutz & Hock, 1995).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아동과의 접근을 통한 안정성이나 신체적 밀접함을 통한 보호, 안락감을 줄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방해받음으로써 비롯되는데, 이러한 어머니와 아동의 격리는 기존의 친밀감을 방해하고, 주변세계에 대한 아동의 탐색과 발견을 조장하는 어머니의 능력을 감소시킨다(박성옥, 1993). Hock(1976), McBride와 Belsky(1988)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아동의 행동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고 격리경험으로 인한 어머니의 행동은 아이의 격리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 즉 격리에 대한 어머니의 불안이 격리사건에 대한 영아의 인식 뿐 아니라 뒤따라 보여지는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복지와 행동에도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이다(박성옥, 1993). 이처럼 영유아의 적응이나 발달에는 부모의 양육태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요인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요인 중 분리불안은 자녀의 적응과 어머니 자신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취업모의 직장보육시설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성영혜·손지미, 1999; 천혜선, 2003)를 통해서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를 다루는데 적절한 해결책 중 하나가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질적 향상임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김혜란(2005)과 김교성·김경희(2003)의 연구에서 여성 근로자들이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한 항목은 심리적 안정감이었고, 많은 여성근로자들이 직장보육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직장보육서비스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다수의 연구와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취업모들이 만 3세 이상의 자녀를 둔 취업모보다 격리불안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는 선행연구(이영미, 1997)를 통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와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어머니는 영아가 최초로 접하는 환경으로, 영아는 자신의 신체적·정서적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어머니와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영아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 영아의 발달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Bowlby, 1982; Park & Waters, 1989), 영아기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영아-어머니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하지만 사회적 변화로 인해 가정에서 보육시설로 영아의 생활영역이 확대 되었고, 관계를 맺게 되는 대상도 부모에서 교사로 확장되었다(김경란, 2006). 특히,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들은 교사들과 다차원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머니와 가지는 관계만큼 중요하며 보육시설 내의 생활에서는 교사와의 관계가 영아의 행동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Howes et al., 1998). 또한 그들의 영아기부터 9세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종단연구에 따르면 영유아 시절 보육교사와 가진 애착안정성이 이후 학령기의 또래 관계를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 특히 유아기보다 영아기에 형성한 교사와의 관계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하여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해야 하는 경우 영아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는 교사의 영향이 더 커져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사-유아관계는 친밀감, 갈등, 의존 세 측면으로 구별된다. 이 중 친밀감은 교사와 유아에게 정서적지지 및 안정감을 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 의미 있는 대상인 교사와 따뜻하고 애정적인 유대를 맺는 것은 학교에 대한 긍정적 정서 및 태도를 갖게 되며, 교사와의 개방적 의사소통은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도울 수 있다(Bridget & Robert, 2001). 또한 부모-자녀 애착 이론에 근거해 볼 때, 교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유아는 주변 환경을 탐색할 수 있는 안전 기저를 가지기 때문에 교사와의 안정애착은 유아로 하여금 유아교육기관에서 사회적 유능성을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이진숙, 2002).

다음으로, 갈등적인 교사-유아관계란 교사와 유아간에 조화로운 상호작용과 라포가 결여된 관계로 볼 수 있다. 교사와의 마찰을 많이 경험한 유아는 교사와의 관계를 지지원으로 활용하는 정도를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유아에게 분노와 불안감을 조장하고 소외감이나 외로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유아의 학업수행이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김인아, 2004). Bridget과 Robert(2001)의 연구에서 교사들은 갈등이 아동의 능력행동을 감소시키고 문제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마지막으로, 의존성은 지지원인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을 나타내고 교사에게 매달리는 유아의 행동을 일컫는다. 교사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는 유아는 여타 사회적 관계를 포

합하여 학교환경에 대한 탐색을 주저할 수 있다.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이나 태도, 외로움 역시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유아에게 보다 일반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애착이론가에 의하면, 지지적 관계에서 친밀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의존성은 감소하는 것이 적응이라고 간주된다(김인아, 2004). 또한 유아의 지나친 의존성은 또래관계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교사에게 의존적인 유아는 또래관계가 덜 유능할 것이라고 예상된다(이진숙, 2002).

어머니와 보육교사에 대한 복합 애착을 고려하여 정서적 문제행동을 살펴본 김영명(1997)의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에서 24-40개월 영아의 정서적 문제행동을 관찰하였는데, 어머니와 교사 둘 다에 대해 애착안정성이 높거나 교사에 대한 애착안정성이 높은 경우 영아의 적대적이고 공격적인 행동, 주의 산만한 행동과 같은 정서적인 문제행동이 적게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보육시설에서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사-유아간의 상호작용의 질이 높을수록 유치원에서 유아의 적응이 높다는 연구(손인숙·송진숙, 2004), 유아-교사 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유아가 유아교육기관에 더 빨리 적응한다(전경아, 2003)는 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영유아가 교사와 맺고 있는 관계는 영유아의 적응, 행동, 또래관계,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직장보육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보육시설이용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만족도나 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있으나 다른 유형의 보육시설과 비교연구(김교성·김경희, 2003)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가족구조의 변화와 취업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이 증가하고 있어 영아의 어린이집적응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첫째, 직장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1·2세반에 재원 중인 영아(생후 19개월~42개월)를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심

리상태의 중요한 차원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며 둘째,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영아의 유아교육기관 적응에 어머니의 심리적 요인인 분리 불안과 교사-영아관계가 중요한 요소임을 밝히고, 취업모의 영아들이 순조로운 어린이집 적응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필요성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영아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시설유형(직장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중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에 영향력이 있는 변인은 무엇이며, 그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만 1·2세반에 재원중인 생후 19개월에서 42개월까지의 영아를 둔 취업모344명과 학급의 담임교사 106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자가 2009년 6월 30일부터 2009년 8월 21일까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한 어린이집 36곳(직장보육시설 11곳, 국공립보육시설 9곳, 민간보육시설 16곳)의 동의를 얻어 설문을 실시하였다.

영아의 가정환경과 취업모의 분리불안을 측정하는 설문지를 해당학급의 담임교사가 영아를 통하여 부모에게 배부·회수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N= 344)

	구 분	빈도	%
성 별	남	172	50.0
	여	172	50.0
연 령	19~24개월 이하	58	16.9
	25~30개월 이하	70	20.3
	31~36개월 이하	112	32.6
	37~42개월 이하	99	28.8
	무응답	5	1.5
이용 시설유형	직장보육시설	129	37.5
	국공립보육시설	115	33.43
	민간보육시설	100	29.07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572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401부(70.10%)를 회수하였고, 부모에게 설문지가 회수된 영아에 대하여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관한 교사평정을 실시하였다. 회수된 401부의 부모설문지와 교사설문지 중 누락·이중 기재된 설문지를 제외한 총 344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 대상의 일반적인 특징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영아적응

영아 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Jewsuwan 등(1993)이 개발한 유아원 적응 질문지(PAQ: Preschool Adjustment Questionnaire)를 오종은(2001)이 번역하여 만 1, 2세 영아에게 적절한 문항으로 수정·보완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친사회적 행동(4문항), 긍정적 감정(7문항), 또래관계(6문항), 자아강도(4문항), 일과에 대한 적응(9문항)으로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사회적 행동이란, 친구들을 잘 도와주고 함께 협동하며 놀잇감을 나누어 사용하는 행동과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 함께 생각하고 관심을 보이는 행동을 의미하고, 긍정적 감정이란 어린이집에서 즐겁게 지내며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편안함을 느끼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며, 또래관계란 또래관계에 있어 친구들이 활동에 잘 참여하고 다른 친구들과 함께 놀이하며 잘 어울려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강도란, 자신감 있고 독립적이며 자기주장이 있고 주도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인내심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일과에 대한 적응은 지시에 잘 따르고 정해진 일과에 충실히 하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의미한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어린이집에서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적응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친사회적 행동 .69, 긍정적 감정 .69, 또래관계 .75, 자아강도 .81, 일과적응 .77이었다.

2)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측정하기 위하여 MSAS(Maternal Separation Anxiety Scale: Hock, 1989)중 '일반적 어머니의 분리불안' 영역의 문항을 안지영·도현심(1998)이 번역하고 수정한 19개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영아의 어머니가 평가하였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도구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3) 교사-영아관계

교사-영아 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영아-교사 관계 척도(Student-Teacher Relationship Scale; STRS, Pianta, 2001)를 정미조(2009)가 번안하여 사용한 것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담임교사가 평가하였다. 이 척도는 친밀감(12문항), 갈등(12문항), 의존성(4문항)으로 총 2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친밀감(11문항), 갈등(12문항), 의존성(4문항) 총 27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친밀감이란, 교사-영아관계의 온정과 개방적 의사소통 정도를 의미하고, 갈등이란, 교사-영아 관계가 적대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상호작용의 정도를 의미하며, 의존성이란 아이가 교사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요인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영아 관계의 Cronbach's α 신뢰도 계수는 친밀감 .83, 갈등 .84, 의존성 .64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WIN 15.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 위해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형제유무), 시설유형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검증, *F*검증(ANOVA)을 실시하였으며, 사후검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중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개인변인 중 불연속변수는 Dummy변수처리 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시설유형(직장보육시설,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

먼저, 영아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여아($M=2.59, SD=.30$)가 남아($M=2.56, SD=.35$)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에서 여아($M=3.75, SD=.47$)가 남아($M=3.70, SD=.47$)보다 점수가 높은 반면, 갈등에서는 남아

<표 2>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어린이집적응 (N = 344)

		남아(n=172)	여아(n=172)	t
		M(SD)	M(SD)	
어머니의 분리불안		2.56(.35)	2.59(.30)	-0.98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3.70(.47)	3.75(.47)	-0.96
	갈등	2.28(.55)	2.19(.51)	1.51
	의존	2.69(.63)	2.67(.67)	.31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2.81(.42)	2.89(.42)	-1.88
	긍정감정	2.97(.40)	3.02(.36)	-1.30
	또래관계	2.74(.46)	2.87(.44)	-2.83**
	자아강도	2.85(.55)	2.92(.53)	-1.26
	일과적응	3.08(.36)	3.16(.36)	-2.06*
	적응총점	2.92(.33)	3.00(.31)	-2.46*

*p<.05, **p<.01

<표 3>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어린이집적응 (N = 344)

		19~24개월 이하 (n=58)	25~30개월 이하 (n=70)	31~36개월 이하 (n=112)	37~42개월 이하 (n=99)	F
어머니의 분리불안		2.59(.37)	2.59(.33)	2.51(.29)	2.62(.34)	1.88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3.73 (.51)	3.66 (.54)	3.73 (.44)	3.77 (.43)	.73
	갈등	2.26 (.64)	2.32 (.54)	2.20 (.49)	2.20 (.50)	.98
	의존	2.84 (.77) ^a	2.75 (.54)	2.71 (.66)	2.52 (.58) ^b	3.83 *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2.68 (.41) ^a	2.84 (.51)	2.86 (.39)	2.95 (.37) ^b	5.51 **
	긍정감정	2.92 (.41) ^a	2.93 (.39) ^a	2.98 (.38)	3.10 (.35) ^b	4.07 **
	또래관계	2.60 (.47) ^a	2.70 (.50) ^{ab}	2.82 (.39) ^{bc}	2.98 (.41) ^c	11.16 ***
	자아강도	2.94 (.61)	2.92 (.51)	2.75 (.51) ^a	3.01 (.50) ^b	4.63 **
	일과적응	3.07 (.36)	3.12 (.36)	3.08 (.34)	3.18 (.37)	1.82
	적응총점	2.87 (.32) ^a	2.93 (.33) ^a	2.93 (.30) ^a	3.07 (.32) ^b	6.11 ***

*p<.05,**p<.01,***p<.001

a, b, c: 유의하게 다른 집단의 표시

(M= 2.28, SD= .55)가 여아(M= 2.19, SD= .51)보다 점수가 높았다. 의존에서도 남아(M= 2.69, SD= .63)가 여아(M= 2.67, SD= .67)보다 점수가 높았으나, 성별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면 또래관계(t= -2.83, p<.01), 일과적응(t= -2.06, p<.05), 적응총점(t= -2.46,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아(M= 2.87, SD= .44)가 남아(M= 2.74, SD= .46)보다 또래관계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일과적응에서도 여아(M= 3.16, SD= .36)가 남아(M= 3.08, SD= .36)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적응총점에서도 여아(M= 3.00, SD= .31)가 남아(M= 2.92, SD= .33)보다 점수가 더 높았다. 친사회적행동, 긍정감정, 자아강도 모두 여아가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을 살펴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살펴보면 37~42개월 영아(M= 2.62, SD= .34)의 어머니가 가장 높은 분리불안을 보였고, 31~36개월의 영아(M= 2.51, SD= .29)의 어머니가 가장 낮은 수준의 분리불안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교사-영아관계를 살펴보면 친밀감은 37~42개월 영아(M= 3.77, SD= .43), 갈등에 있어서는 25~30개월 영아(M= 2.32, SD= .54)가 교사와 가장 높은 갈등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친밀감과 갈등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의존관계에 있어서는 하위 집단 간 (F= 3.83, p<.05)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한 결과 19~24개월 영아(M= 2.84, SD= .77)가 37~42개월 영아(M= 2.52, SD= .58)보다 높은 의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는 친사회적행동(F= 5.51, p<.01), 긍정감정(F= 4.07, p<.01), 또래관계(F= 11.16,

<표 4>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N = 344)

		외동아(n=153)	형제아(n=187)	t
		M(SD)	M(SD)	
어머니의 분리불안		2.60(.33)	2.56(.33)	1.06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3.70(.47)	3.75(.47)	-1.01
	갈 등	2.28(.57)	2.20(.47)	1.47
	의 존	2.74(.67)	2.64(.62)	1.51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2.78(.42)	2.91(.42)	-2.96**
	긍정감정	2.97(.36)	3.02(.40)	-1.26
	또래관계	2.71(.47)	2.89(.43)	-3.57***
	자아강도	2.89(.53)	2.89(.54)	-.09
	일과적응	3.07(.35)	3.16(.36)	-2.19**
	적응총점	2.91(.32)	3.00(.32)	-2.63**

p<.01, *p<.001

p<.001), 자아강도(F= 4.63, p<.01), 적응총점(F= 6.1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한 결과 친사회적 행동에서 37~42개월 영아(M= 2.95, SD= .37)가 19~24개월 영아(M= 2.68, SD= .41)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긍정감정에서는 37~42개월 영아(M= 3.10, SD= .35)가 19~24개월 영아(M= 2.92, SD= .41)와 25~30개월 영아(M= 2.93, SD= .39)보다 점수가 높았다.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37~42개월 영아(M= 2.98, SD= .41)와 31~36개월 영아(M= 2.82, SD= .39)가 19~24개월 영아(M= 2.60, SD= .47)와 25~30개월 영아(M= 2.70, SD= .50)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자아강도에서는 37~42개월 영아(M= 3.01, SD= .50)가 31~36개월 영아(M= 2.75, SD= .51)보다 점수가 더 높았으며, 적응총점에서는 37~42개월 영아(M= 3.07, SD= .32)가 31~36개월 영아(M= 2.93, SD= .30), 25~30개월 영아(M= 2.93, SD= .33)와 19~24개월 영아(M= 2.87, SD= .32)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과적응에서도 37~42개월 영아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영아의 형제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외동아 어머니의 분리불안(M= 2.60, SD= .33)이 형제아 어머니의 분리불안(M= 2.56, SD= .33)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교사-영아관계에서 친밀감은 형제아(M= 3.75, SD= .47)가 외동아(M= 3.70, SD= .47)보다 높게 나타났다. 갈등에서는 외동아(M= 2.28, SD= .57)가 형제아(M= 2.20, SD= .47)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고, 의존 역시 외동아(M= 2.74, SD= .67)가 형제아(M= 2.64, SD= .62)보다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으나, 형제 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교사-영아관계 모든 하위영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는 친사회적 행동(t= -2.96, p<.01), 또래관계(t= -3.57, p<.001), 일과적응(t= -2.19, p<.01), 적응총점(t= -2.63,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형제아(M= 2.91, SD= .42)가 외동아(M= 2.78, SD= .42)보다 친사회적행동 점수가 높았고, 또래관계에 있어서는 형제아(M= 2.89, SD= .43)가 외동아(M= 2.71, SD= .47)보다 점수가 높았다. 일과적응에서도 형제아(M= 3.16, SD= .36)가 외동아(M= 3.07, SD= .35)보다 점수가 높았으며, 적응총점에서도 형제아(M= 3.00, SD= .32)가 외동아(M= 2.91, SD= .32)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감정에서도 형제아(M= 3.02, SD= .40)가 외동아(M= 2.97, SD= .36)보다 높았으며, 자아강도에서는 형제아(M= 2.89, SD= .54)와 외동아(M= 2.89, SD= .53)의 점수가 같았지만 긍정감정과 자아강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F검증을 실시하고, 사후분석으로 Scheffe'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M= 2.53, SD= .32)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M= 2.57, SD= .34)과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의 분리불안(M= 2.62, SD= .32)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시설유형에 따라 교사-영아관계를 살펴보면 친밀감(F= 7.05,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한 결과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 3.84, SD= .45)이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 3.66, SD= .49)과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 3.64, SD= .46)보다 친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에서는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 2.31, SD= .57), 의존에서

<표 5> 시설유형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N = 344)

		직장보육시설(n=129)	국공립보육시설(n=115)	민간보육시설(n=100)	F
		M(SD)	M(SD)	M(SD)	
어머니의 분리불안		2.57(.34)	2.62(.32)	2.53(.32)	1.89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3.84(.45) ^a	3.66(.49) ^b	3.64(.46) ^b	7.05**
	갈 등	2.17(.53)	2.31(.57)	2.24(.46)	2.14
	의 존	2.71(.65)	2.68(.68)	2.66(.60)	.21
어린이집 적응	친사회적 행동	2.91(.44)	2.79(.40)	2.84(.43)	2.74
	긍정감정	3.00(.39)	2.96(.39)	3.03(.37)	.79
	또래관계	2.85(.48)	2.78(.43)	2.78(.44)	.88
	자아강도	2.90(.54)	2.86(.57)	2.91(.49)	.26
	일과적응	3.19(.38) ^a	3.09(.36)	3.07(.32) ^b	3.97*
	적응총점	3.00(.33)	2.93(.32)	2.95(.31)	1.72

* $p<.05$,** $p<.01$

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2.71$, $SD=.65$)이 가장 점수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설유형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 있어서는 일과적응($F=3.97$,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하위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후분석으로 검증을 한 결과 일과적응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3.19$, $SD=.38$)이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3.07$, $SD=.32$)보다 점수가 높아 일과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사회적 행동은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2.91$, $SD=.44$), 긍정적 감정에서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3.03$, $SD=.37$), 또래관계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2.85$, $SD=.48$)이 점수가 가장 높았다. 또한 자아강도에서는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2.91$, $SD=.49$), 적응총점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M=3.00$, $SD=.33$)의 점수가 가장 높았으나 친사회적행동, 긍정감정, 또래관계, 자아강도, 적응총점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중 영아의 보육시설적응에 영향력이 가장 큰 변인과 영향력은 어떠한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가중성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VIF는 10이하, TOL는 0.1이상을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회귀분석을 위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였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

-영아관계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는 <표 6>~<표 11>과 같다. 1단계에서는 사회·인구학적 변인(성별, 연령, 형제유무)과 시설유형을 투입하고, 2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분리불안, 3단계에서는 교사-영아관계를 투입하였다.

먼저, 사회·인구학적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6>와 같다. 친사회적행동의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20$, $p<.001$), 형제유무($\beta=.12$, $p<.05$), 국공립보육시설($\beta=-.15$, $p<.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으며,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22%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설명력은 31%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beta=.31$, $p<.001$)과 갈등($\beta=-.26$, $p<.001$), 영아의 연령($\beta=.17$, $p<.01$) 순이었다. 이때, 형제유무와 시설유형이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연령이 높으며,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7>과 같다. 긍정적 감정 1단계에서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17$, $p<.01$)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N = 339)

독립변인	친사회적 행동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a	.07	.09	.08	.09	.05	.05
	연 령	.08	.20***	.08	.20***	.07	.17**
	형제유무 ^b	.09	.12*	.09	.12*	.36	.08
	시설유형 ^c (국공립)	-.13	-.15*	-.13	-.15*	-.05	-.06
	시설유형 ^c (민간)	-.07	-.08	-.07	-.08	-.01	-.01
어머니의 분리불안			-.07	-.05	-.00	-.00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28	.31***	
	갈 등				-.20	-.26***	
	의 존				-.03	-.04	
F값		6.32***		5.44***		16.08***	
R ²		.09		.09		.31	
R ² 변화량		.09		-		.22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표 7>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 (N = 339)

독립변인	긍정적 감정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인구학적 변인	성 별 ^a	.05	.07	.06	.08	.02	.02
	연 령	.06	.17**	.06	.17**	.04	.10*
	형제유무 ^b	.04	.06	.04	.06	-.00	-.00
	시설유형 ^c (국공립)	-.04	-.05	-.03	-.04	.06	.08
	시설유형 ^c (민간)	-.04	-.04	.03	.04	.11	.14**
어머니의 분리불안			-.16	-.13*	-.07	-.06	
교사-영아관계	친밀감				.38	.47***	
	갈 등				-.21	-.29***	
	의 존				-.10	-.17***	
F값		3.20**		3.75**		32.57***	
R ²		.05		.06		.47	
R ² 변화량		.05		.01		.41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연령($\beta = .17, p < .01$)과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13, p < .05$)이었다.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41%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설명력은 47%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beta = .47, p < .001$), 갈등($\beta = -.29, p < .001$)과 의존($\beta = -.17, p < .001$), 민간보육시설($\beta = .14, p < .01$), 영아의 연령($\beta = .10, p < .01$) 순이었다. 이때,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긍정적 감정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연령이 높으며, 직장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가,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의 긍정적 감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적응의 하위요소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8>과 같다. 또래관계 1단계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연령($\beta = .29, p < .001$)과 형제유무($\beta = .15, p < .01$), 성별($\beta = .13, p < .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14%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1%로,

<표 8>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N= 399)

독립변인	또래관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 별 ^a	.12	.13*	.12	.14**	.09	.10*
	연 령	.13	.29***	.13	.29***	.11	.25***
	형제유무 ^b	.12	.15**	.12	.15**	.09	.12*
	시설유형 ^c (국공립)	-.07	-.08	-.07	-.08	-.00	-.00
	시설유형 ^c (민간)	-.07	-.07	-.07	-.07	-.02	-.02
어머니의 분리불안			-.09	-.06	.00	.00	
교사- 영아관계	친밀감				.19	.20***	
	갈 등				-.26	-.30***	
	의 존				-.05	-.07	
F값		10.97***		9.41***		17.64***	
R ²		.14		.15		.33	
R ² 변화량		.14		.01		.18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자아강도에 미치는 영향 (N = 339)

독립변인	자아강도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 별 ^a	.08	.08	.09	.08	.07	.07
	연 령	.01	.03	.01	.03	-.02	-.03
	형제유무 ^b	.01	.01	.01	.01	-.03	-.04
	시설유형 ^c (국공립)	-.04	-.04	-.04	-.03	-.03	.02
	시설유형 ^c (민간)	.02	.02	.02	.01	.10	.09
어머니의 분리불안			-.12	-.07	-.16	-.10	
교사- 영아관계	친밀감				-.67	.59***	
	갈 등				-.36	.35***	
	의 존				-.26	-.31***	
F값		.59		.78		12.41***	
R ²		.01		.02		.25	
R ² 변화량		.01		.01		.23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연령($\beta = .29, p < .001$)과 형제 유무($\beta = .15, p < .01$), 성별($\beta = .14, p < .05$)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18%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설명력은 33%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갈등($\beta = -.30, p < .001$)과 영아의 연령($\beta = .25, p < .001$),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beta = .20, p < .001$) 형제유무($\beta = .12, p < .05$) 영아의 성별($\beta = .10, p < .05$) 순이었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영아의 연령이 많으며, 외동아 보다는 형제아가 또래관계가 좋

으며,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영아의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적응 중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9>과 같다. 자아강도 1단계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와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영향력은 각각 1%와 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23%로

<표 10>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 중 일과 적응에 미치는 영향 (N = 339)

독립변인	일과적응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a	.08	.11*	.08	.12*	.06	.08
	연령	.03	.09	.03	.09	.01	.02
	형제유무 ^b	.06	.09	.05	.09	.02	.03
	시설유형 ^c (국공립)	-.09	-.12*	-.09	-.12	-.02	-.03
	시설유형 ^c (민간)	-.10	-.14*	-.12	-.15*	-.05	-.06
어머니의 분리불안			-.14	-.13*	-.09	-.08	
교사- 영아관계	친밀감				.37	.48***	
	갈등				-.07	-.10	
	의존				-.14	-.25***	
F값		3.63**		4.00**		19.73***	
R ²		.05		.07		.35	
R ² 변화량		.05		.02		.28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표 11>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적응(총점)에 미치는 영향 (N = 339)

독립변인	적응(총점)						
	1단계		2단계		3단계		
	B	β	B	β	B	β	
사회· 인구학적 변인	성별	.08	.13*	.09	.13*	.05	.08*
	연령	.06	.20***	.06	.20***	.04	.13**
	형제유무	.06	.12*	.06	.11*	.03	.05
	시설유형 ^c (국공립)	-.08	-.11	-.07	-.10	.00	.01
	시설유형 ^c (민간)	-.04	-.06	-.05	-.07	.02	.03
어머니의 분리불안			-.12	-.12*	-.06	-.07	
교사- 영아관계	친밀감				.37	.53***	
	갈등				-.10	-.16**	
	의존				-.11	-.23***	
F값		6.19***		6.14***		33.42***	
R ²		.09		.11		.48	
R ² 변화량		.09		.02		.37	

*p<.05 **p<.01 ***p<.001

a: 가변수(남아= 0, 여아=1), b: 가변수(외동아= 0, 형제아= 1),

c: 가변수(직장보육시설= 0, 국공립보육시설= 1, 민간보육시설= 2)

나타났다. 자아강도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β .59, p <.001), 갈등(β .35, p <.001), 의존(β -.31, p <.001)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적 관계이며,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의 자아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적응의 하위요소인 일과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와 같다. 일과적응 1단계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β .11, p <.05)과 국공립보육시설(β -.12, p <.001), 민간보육시설(β -.14, p <.05)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5%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β .12, p <.05)과 민간보육시설(β -.15, p <.05), 어머니의 분리불안(β -.13, p <.05)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라 28%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설명력은 35%로 나타났으며, 영아의 성별과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β .48, p <.001)과 의존(β -.25, p <.001)으로, 교사와 영아의 관계가 친밀하

며 의존이 적을 때 일과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인구학적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적응총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1>과 같다. 적응총점 1단계에서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과 시설유형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성별($\beta = .13, p < .05$)과 연령($\beta = .20, p < .001$), 형제유무($\beta = .12, p < .05$)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며, 그 설명력은 9%였다. 2단계에서 어머니의 분리불안 투입에 의한 설명력의 증가는 2%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성별($\beta = .13, p < .05$)과 연령($\beta = .20, p < .001$), 형제유무($\beta = .11, p < .05$), 어머니의 분리불안($\beta = -.12, p < .05$)으로 나타났다. 또한 3단계에서 교사-영아관계 투입에 따른 설명력의 증가는 37%로 나타나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의 설명력은 48%로 나타났다. 적응총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beta = .53, p < .001$), 의존($\beta = -.23, p < .001$)과 갈등($\beta = -.16, p < .01$), 영아의 연령($\beta = .13, p < .01$), 성별($\beta = .08, p < .05$) 순이었다. 이때,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영아의 적응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은 소멸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적응을 잘하는 것을 말하며, 영아의 연령이 높고,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이른 시기부터 가정을 떠나 어머니와 격리를 경험하며 어린이집이라는 낯선 상황에 적응해야 하는 영아들에게 그들의 성장과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아교육기관의 적응에 대하여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를 어린이집의 유형에 따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중심으로 연구문제별로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사회 인구학적 배경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사회 인구학적 배경으로는 영아의 성별, 연령, 형제유무, 보육시설의 유형을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은 여아의 어머니가 남아의 어머니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대상이 취업모로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남주현(2003)은 어머니와 영아의 격리상황이 선택적인 상황이 아닌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영아의 성별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교사-영아관계에서 친밀감은 여아가, 갈등과 의존에서는 남아가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적응에 있어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관계, 일과적응, 적응총점에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별에 따라 여아가 적응을 더 잘한다는 연구결과(오종은, 2001; 장혜정, 2003; 현온강·태진, 2000)와 일치하지만 남아가 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손인숙·송진숙, 2004)와는 대조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가 남아보다 발달심리학 차원에서 심리적으로 성숙이 빠르며 남아보다 여아들이 자신이 느끼는 감정이나 기분을 적절하게 표현할 줄 알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능력과 다른 사람의 기분 및 상황을 잘 느끼고 이해하며 효과적인 인간관계를 이끌어 갈 수 있는 능력을 발달심리학적으로 본 서기남(2008)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여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본다. 이상의 연구결과와 같이 여아가 남아보다 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 결과는 남아는 어린이집에 적응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남아에게 어린이집 적응 시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다음으로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의 분리불안에서는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격리불안이 감소된다는 연구(박성옥, 1993; McBride & Belsky, 1988)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영아의 재원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연구의 시기가 입소일로부터 다소 지난 관계로 영아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영아 관계에서 연령이 낮은 영아일수록 의존이 유의미하게 높았고, 적응에 있어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친사회적 행동, 긍정감정, 또래관계가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가장 높은 연령인 37~42개월 영아가 자아강도와 적응총점에서도 유의미하게 가장 점수가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만 1, 2세 영아의 적응을 비교한 오종은(2001)의 연구에서 2세아는 1세아 보다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와 연령이 많을수록 적응을 잘한다는 전미경(2004)의 연구와 일치한다.

영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교사에게 의존하던 행동에서 점차 독립적인 행동이 늘어나면서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령이 낮은 영아들은 교사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며 친사회적 행동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진다. 유아들이 성숙하면서 교사-유아의 의존상태의 빈도는 감소하는데 의존상태를 고집하는 유아들은 원만하지 못한 또래관계나 외로움 등을 느껴(안명희·김명희, 2006) 어려움을 보일 것이다.

따라서 교사들은 연령이 낮은 영아라 할지라도 교사에게

의존하는 관계를 맺기 보다는 또래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즐겁게 어린이집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또한 영아를 위한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영아에게 정서적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함을 시사하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영아에게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형제유무에 따른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 어린이집 적응 차이를 알아본 결과 외동아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약간 더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교사-영아관계에서 친밀감은 형제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과 의존에서는 외동아가 더 높게 나타났지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적응에 있어서는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일과적응, 적응총점에서 형제아가 외동아보다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외동아가 만이나 둘째이상의 영아보다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나 적응에서는 형제보다는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더 중요하다고 해석한 허서옥·전예화(2001)의 연구와 대조되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취업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상호작용보다는 형제와의 상호작용이 교사-영아관계에서의 친밀감과 영아 적응의 하위요인인 친사회적 행동, 또래관계, 일과적응, 적응총점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형제이는 형제·자매와의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사회적응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출산율의 감소로 인해 외동아가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 영아와 함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형제가 줄어들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영아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시설유형에 따라 어머니의 분리불안 차이를 살펴본 결과 국공립보육시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직장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순으로 높은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나타났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의 보육의 질과 만족도 차이를 비교한 연구(김교성·김경희, 2003)에서 심리적 차원에서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인식이 일반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연구와 상이한 결과이다. 또한 보육시설이 직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보육시설보다 물리적인 접근성도 용이하고 심리적인 안정감도 높기 때문에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여성근로자들의 보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고 한 연구(손지미, 1998)와도 상이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이 연구가 연구대상 영아 선정 시에 어린이집 재원시기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유희정(1997)이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은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김정자(2006)의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취업모들이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보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집 가까이 있어야 하고, 보육시간 연장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모의 분리불안을 알아보는 연구에서는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도 함께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시설유형에 따라 교사-영아관계를 살펴보면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보다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에서 점수가 높았고, 적응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가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아보다 일과적응을 더 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교사-영아관계에서 형성된 친밀감이 영아의 일과적응을 도왔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둘째, 사회·인구학적 변인, 시설유형,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의 보육시설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아의 적응 중 친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과 갈등, 영아의 연령순으로 나타나 영아의 연령이 높으며,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영아의 친사회적 행동이 높았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교사가 애정적 상호작용을 할수록 영아가 주의집중과 모방놀이를 잘 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며 또래와 친사회적인 관계를 만드는 등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이선영(2006)의 연구와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

영아의 적응 중 긍정적인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 갈등과 의존, 민간보육시설, 영아의 연령순으로 나타났다. 즉, 영아의 연령이 높으며, 직장보육시설보다는 민간보육시설의 영아들이 긍정적인 감정이 높고,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의 긍정적인 감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민간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영아보육 만족도를 조사한 연구(문영경 외, 2008)에서 교사와 영아 간 상호작용에 대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를 보았을 때, 본 연구결과에서도 교사와 영아의 질 높은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영아에게 긍정적인 감정이 형성되었으리라 추론해 볼 수 있다. 영아기는 인간발달의 결정적 시기로서 영아가 교사를 신뢰하고 애착을 느끼게 될 때 영아는 비로소 한결음 더 발전된 적응양상을 보이게 되므로(구수연, 2005; 박은미, 2003), 교사의 따뜻하고 민감한 보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어머니를 대신하여 영아에게 편안한 안정된 정서적 기저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의 역할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장은미, 2008).

영아의 적응 중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갈등과 영아의 연령,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 형제 유무, 영아의 성별 순으로 나타났다. 즉, 남아보다는 여아가, 영아의 연령이 많으며, 외동아 보다는 형제아가 또래관계가 좋으며,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이 적을수록 영아의 또래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지희(2008)의 유아-교사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또래 관계에서 사회성이 높다는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영아의 적응 중 자아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 갈등, 의존 순으로 나타났다. 즉,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적 관계이며,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의 자아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의 자아강도에 있어서도 교사-영아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교사는 영아와 원만한 관계가 적응에 중요함을 말해준다. 또한 교사는 영아와의 관계 뿐 아니라 영아의 발달에 적합한 교실환경을 구성하여 영아가 적극성을 가진 능동적인 탐색자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장은미, 2008).

일과적응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의 친밀감과 의존으로, 교사와 영아의 관계가 친밀하며 의존이 적을 때 일과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Pianta(1994)의 연구에서 유아-교사관계가 친밀하고 긍정적으로 형성된 유아는 유아-교사관계가 갈등적이며 의존적인 유아보다 학령기가 되었을 때 문제행동이 더 적고 좌절에 대한 인내와 사회적 기술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유아기 때에 형성된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기가 되었을 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를 고려해 보았을 때, 영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기 위한 교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아기 발달상 특징으로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 갈등과 좌절을 겪기 쉽다. 따라서 교사는 영아기 발달 특징을 고려하여 영아와 적절한 상호작용을 통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아의 적응총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 변인은 교사-영아관계 하위변인인 친밀감, 의존과 갈등, 영아의 연령, 성별 순으로 남아보다는 여아가 적응을 잘하는 것을 말하며, 영아의 연령이 높고, 교사-영아관계가 친밀하고 갈등과 의존이 적을수록 영아가 어린이집에 적응을 잘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아-교사관계의 영향력을 통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아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교사의 역할은 영아에게 부모만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변인은 교사-영아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자(2006)의 보육시설의 질에 대한 연구 결과에서 취업모들은 교사의

자질과 아동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사를 선호 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는 영아의 적응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결국 영아에게 교사는 낯선 어린이집 환경에서 자신에게 도움과 편안함을 제공해주는 성인으로서 영아의 적응지도를 위한 교사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교사가 영아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는 등 적응을 돕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효율적인 적응지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지속적인 장학과 함께 현장 장학이 필요할 것이다(손인숙·송진숙, 2004).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을 알아보는 연구에서 교사의 자질을 포함하여 함께 고려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어머니의 취업 및 분리불안은 아동의 적응에서 중요한 변인으로 제시되는데 반해(유현숙, 2006)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교사-영아관계가 영아적응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직업에 대한 태도나 직업 만족도와 같은 변인을 함께 고려해 보아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영아의 적응을 알아보는데 있어 어머니의 분리불안과 교사-영아관계에 초점을 두어 영아의 적응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 방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사-영아관계와 영아 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사 1인의 보고에 의존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교사보고에 의한 질문지를 통한 측정방법은 교사의 주관적인 견해가 개입되어있을 수 있으며, 실제 행동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관찰이나 실험연구 등을 통하여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연구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의 분리불안, 교사-영아관계가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종단연구를 통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어머니의 분리불안 측정을 하는데 있어 영아들의 적응이 이루어진 후인 6월~8월에 실시하였으므로 어머니의 분리불안이 감소되어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사후 연구에서는 입소 시거나 재원기간 등을 고려한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 적응 기간 동안 어머니의 분리불안을 측정하여 영아의 초기 적응에 관한 적응 연구가 요구된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어린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는 취업모와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영아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1990).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8). 교육통계연보.
 구수연(2005).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정에 관한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경란(2006). 놀이에 나타난 영아의 교사 및 또래와의 관계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김교성·김경희(2003).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근로자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및 격리불안정도에 관한 비교. **한국영유아보육학**, **33**, 1-22.
 김민지(2000). 어머니의 격리불안 및 영아의 기질과 종일반 탁아기관에서의 영아의 초기적응.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영명(1997). 어머니 및 보육교사에 대한 유아의 애착안정성에 따른 정서적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인아(2004). 교사-유아 애착안정성과 교사-유아관계 및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김정자(2006). 보육시설에 대한 취업모의 선호도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혜란(2005). 여성근로자의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만족 및 효과성 평가. **한국영유아보육학**, **43**, 179-199.
 김희진, 김영애(2008). 영아 초기적응 지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과 실태. **유아교육연구**, **28**(1), 5-25.
 남주현(2003). 영아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류경(2000). 보육시설 초기적응과정의 영아 행동 특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문영경·정지나·이영(2008). 민간보육시설 이용자의 영아보육 만족도 및 요구도. **한국영유아보육학**, **54**, 163-187.
 박성옥(1993).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격리불안.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박은미(2003). 3세 유아의 유치원 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사회적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박희정(2008). 부모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기질이 유치원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보육사업안내(2009). 보건복지가족부.
 보육통계(2008). 보건복지가족부.
 서기남(2008). 유아의 리더쉽과 관련된 변인연구. 가톨릭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성영혜·손지미(1999). 직장보육의 부모양육 보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61-78.
 손인숙·송진숙(2004). 부모와 교사간의 연계교육 및 유아-교사간의 상호작용의 질에 따른 유아의 적응에 대한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9**, 111-128.
 손지미(1998). 직장보육의 부모양육 보충효과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송진숙(2004). 유아교육기관에서의 유아의 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1**(3), 167-189.
 안명희·김명희(2006). 교사의 애착유형, 교사-유아의 관계와 유아의 적응. **생활과학연구**, **11**, 134-149.
 안지영·도현심(1998). 자녀 양육행동, 아동의 낯가림 경험 및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분리불안. **대한가정학회지**, **36**(8), 13-20.
 오종은(2001). 영아의 애착안정성과 어린이집 초기적응 간의 관계. 연세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원영미(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유현숙(2006).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양육 태도 및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유희정(1997).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른 질적 수준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선영(2006). 교사의 상호작용 행동과 영아의 사회·정서적 행동 간의 관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영·김명순(1999). 유아교육기관 유형에 따른 교사 또래관계 및 아동발달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7**(8), 103-115.
 이영미(1997). 취업모의 격리불안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이지희(2008).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이진숙(2002). 교사-유아관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한국생활과학지**, **11**(2), 123-133.
 이현숙·조혜진(2009). 영아의 개인변인과 어린이집의 환경변인이 영아의 어린이집 초기적응에 미치는 영향. **아동교육**, **18**(2), 179-192.
 이희영(2001). 어머니와 자녀와의 관계가 유치원 초기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임말자·최경순(2003). 유아의 성·연령·기질 및 가정환경 자극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69-207.

- 장성덕(2007).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취업이 유아의 유아교육 기관 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은미(2008). 영아의 기질, 조기교육경험,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어린이집 적응에서의 문제행동.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장혜정(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교육기관 초기 적응과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경아(2003). 유아의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사회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전미경(2004). 영아의 기질과 어린이집 초기적응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미조(2009). 교사가 인식한 영아-교사관계와 놀이 시 나타난 영아-교사 및 영아-또래 상호작용.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정은혜(2000). 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천혜선(2003). 기혼 위업여성의 육아실태 및 육아지원 방안을 위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최순덕(2007). 유아의 유치원 적응 관련변인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 통계청(2008). 경제활동 인구연보.
- 허서옥 · 전예화(2001). 어머니의 격리불안과 영아의 어린이집 적응과의 관계. *인제논총*, 16(1), 287-296.
- 현은강 · 태진(2000). 보육환경의 질과 영유아의 적응. *대한가정학회지*, 28(3), 25-42.
- Becker, W. C.(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 N.Y.: Russell Sage Foundation.
- Belsky, J. (1984). The determination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86.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2nd Ed). NY: Basic.
- Bridget, K. H. & Robert, C. P. (2001). Early teacher-child relationship and trajectory of children's school outcomes through eighth grade. *Child Development*, 72, 625-638.
- Hock, E. (1976). *Alternative approaches to child rearing and their effects o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Urbana, IL: Educational Resources Information Center/Early Childhood Education (122943).
- Howes, C., Hamilton, C. E., & Philipsen, L. C. (1998). Stability and continuity of child-caregiver and child-peer relationships. *Child Development*, 69(2), 418-426.
- Ladd, G., & Price, J. (1987). Predicting children's social school adjustment following the transition from preschool to 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58, 1168-1189.
- Lutz, W., & Hock, E. (1995). Maternal Separation Anxiety. Relations to Adult Attachment Representations in Mothers of Infant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56(1), 57-72.
- McBride, S, L., & Belsky, J. (1988). Characteristics, determination, consequences of maternal separation anx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4, 407-414.
- Park, K. A., & Waters, E. (1989). Security of attachment and preschool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0, 1076-1281.
- Parker-Cohen, N. Y., & Bell, R. Q.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temperament and social adjustment to pee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3, 179-192.
- Pianta(1994). Patterns of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 and Kindergarten teacher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2(1), 15-31.
- Salovey, P., & Mayer, J. D. (1996). What is emotional intelligence? In P. Salovey, & D. Slyter(Eds.). *Emotional development and emotional intelligence : Implication educators*. N.Y. : Basic Books.

접수일 : 2010년 01월 15일

심사일 : 2010년 02월 01일

심사완료일 : 2010년 04월 06일